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발생한 비장의 Peliosis 증례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조직병리학교실¹

장윤경, 정선중, 김병수, 이승현, 진동찬, 김석영, 최의진, 방병기, 이은희¹

간이나 비장의 Peliosis는 간이나 비장 등의 장기에 혈류의 충혈이 내피세포의 증식이 없이도 발달하는 조직학적인 병변을 일컫는다. Peliosis의 선행원인으로는 피임약이나, 호르몬 제제 등의 과용 등이 알려져 있고, 감염이 선행할 경우 Bartonella종의 세균성혈관종이나 충혈이 피부에서는 일종의 사마귀형태로, 간이나 비장, 임파선 혹은 골수, 폐, 뇌 등의 주요 내부장기에서는 충혈혈종을 형성한다. 간혹 신이식환자에 있어 장기적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간의 focal nodular hyperplasia와 Peliosis의 발달이 보고된 바 있다. Bartonella종의 혈관종이나 Peliosis 환자의 약 90%가 HIV 감염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라는 보고가 있다. 저자들은 신이식을 받았으나 이식실패를 하고, 6년간 정기혈액투석을 받아온 말기신부전 환자에서 발생한 비장의 Peliosis 증례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37세, 남자로 1996년 원인불명의 만성신부전으로 진단을 받고, 강남성모병원에서 1996년 11월에 신이식술을 받았으나, 1996년 12월에 이식신부전이 발생하여 이식신제거술을 받고, 6년간 본원에서 혈액투석을 해왔다. 2002년 3월에 시행한 혈청검사상 만성 C형 간염 및 간경변증의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2002년 4월경부터 발생한 복부 불편감으로 2002년 5월에 본원에 내원하였다. 내원당시 검사실 소견상에서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7,600/\text{mm}^3$, 혈색소 8.2g/dl , 혈소판 $31,000/\text{mm}^3$ 이었고,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상 비장비대가 심하였고 비장의 충혈 및 허혈성 변화가 의심되었으며, 간내에 칸디다나 결핵성으로 의심되는 저음영의 미만성병변이 관찰되었다. 복통이 심하여 2002년 6월 5일에 본원에서 비장절제술을 받았고, 비장의 수술조직소견상 비장의 출혈성 충혈 및 경색, 그리고 peliosis소견이 확인되었다. 입원 중에 시행한 혈액배양검사는 모두 음성소견이었다. 비장제거 후에도 혈소판 감소증은 입원경과 중 지속되었으며, 골수검사를 거부한 상태로 제 16 병일에 환자가 퇴원하였다. 정기 혈액투석 및 내과외래추적 중에도 혈소판 감소증은 지속되었다.